



## 금속산별 2022년 중앙교섭 출발

### 12일 1차 중앙교섭 상견례 ... 금속 최저임금 10,250원·위험성 평가 조항 구체화 요구

금속노조가 2022년 중앙교섭을 시작하며, 임단협 투쟁에 돌입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4월 12일 서울 중구 정동 노조 회의실에서 1차 중앙교섭을 상견례로 열었다.

박근형 금속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좀 늦었지만 12기 집행부 출범을 축하한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박 대행은 “매년 교섭 때마다 왜 이렇게 참가사업장이 적을까 고민한다”라면서 “63개 사업장이 교섭을 시작하지만, 가입 의사를 타진한 회사들이 절차를 마무리하면 교섭 중간에 몇 개 회사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지난해 금속 노·사는 산업전환 협약을 합의하고, 국내 노·사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단협을 체결하는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라며 “올해 교섭 역시 쉽지 않을 듯하지만, 위원장님이나 지부장님들이 부품사로 구성된 사용자협의회를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근형 대행은 “올해 통일요구안 두 개는 조합과 굉장히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면서 “다음 주 워크숍 등을 통해 좋은 방안을 만들 생각이다. 사용자협의회는 회원사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섭하고,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올해도 노·사 모두 윈윈하는 합의 도출을 기원한다”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반갑다. 갑자기 여름처럼 덥다.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하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윤장혁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19는 진행 중이고, 전환기 산업 변화 속도는 가파르고, 새 정부가 임기를 시작하는 어려운 시점에 올해 중앙교섭을 시작한다”라고 금속 노·사가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는 지난해 합의한 협약의 연장선에서 요구안을 만들었다.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라서 많은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면서 “사용자협의회

가 노조 요구안을 전폭 수용하길 바란다. 금속노조도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해 중앙교섭에서 산업전환 협약과 기후위기 공동선언 등 의미 있는 합의를 했

다”라며 “지난해 2차 파업을 앞두고 집중교섭을 벌여 슬기롭게 교섭을 마무리했다. 올해도 서로 노력해서 지혜롭게 마무리하자”라고 당부했다.

엄교수 노조 사무처장은 노조 측 금속노사공동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쳤다면 사용자협의회도 위원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박근형 회장 직무대행은 회원사 워크숍 등을 통해 위원 선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금속노조는 올해 통일요구로 금속산별협약 57조 산업전환대응 5항 신설, 31조 위험성 평가 전부 개정·신설을 요구한다. 중앙교섭 요구는 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10,250원과 월 통상임금 2,316,500원 중 높은 금액으로 적용, 42조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활동 및 고용보장 개정·신설 등이다.

4월 19일 2차 중앙교섭은 대전에서 사측 주관으로 연다.